

이승준 02) 2009-7088
leesj@leading.co.kr

성탄절을 하루 앞둔 24일 뉴욕증시는 경제지표 감소폭이 예상보다 완만하게 나타났고 연속 하락세를 보이던 자동차주와 금융주가 반등에 성공하며 상승 마감.

블루칩 위주의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48.99p(0.58%) 상승한 8,468.48을 기록. GM은 주가가 8.3% 오르며 지수 상승을 주도.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그룹, JP 모건 등 금융주들도 일제히 상승.

S&P500 지수는 전일대비 4.99p(0.58%) 오른 868.15에 마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3.36p(0.22%) 오른 1,524.90에 장을 마감.

오후 1시 조기 마감한 증시는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가 26년래 최고치를 나타내고 기업실적 우려가 남아있는 가운데 11월 소비지출과 내구재 주문이 예상치를 상회하며 상승.

지난주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58만6,000건을 나타내며 3만건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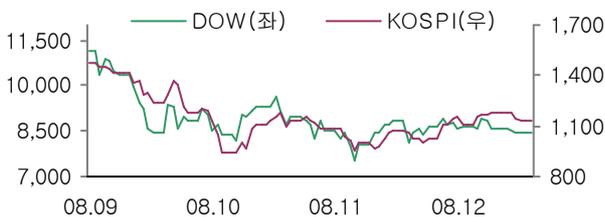
11월 소비지출은 전월대비 0.6% 감소하였으나 월가 예상치인 0.8% 보다 양호한 수치를 나타냄. 11월 내구재 주문은 3% 감소를 예상한 월가의 예상치 보다 양호한 1% 감소를 기록.

경기침체로 인해 연말 대목기간 동안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이시와 JC 페니가 각각 1.3%, 1.5% 상승하며 유통주들이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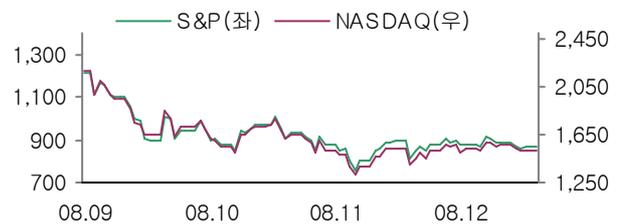
그러나 기업실적 부진 우려가 상존해 있는데다 경기후퇴 여파로 인해 자산운용사들이 조기 '북 클로징에' 나서 지수 상승을 제한.

미국 시장 주요 지표(pt, %)

지수	증가	1일	5일	10일	1개월	3개월	12개월
DOW(좌)	8,468.48	0.58	-4.03	-3.34	0.30	-21.98	-37.50
S&P(좌)	868.15	0.58	-4.01	-3.46	1.92	-26.94	-41.99
NASDAQ(우)	1,524.90	0.22	-3.45	-2.59	3.59	-29.18	-43.80



자료: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자료: Bloomberg, 리딩투자증권

* 상기 게재된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이와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은 이용자 개인의 책임하에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발간일 이전 사전 자료로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